

김효정, 유경, 이우일, 신현림이 권하는 여름에 읽으면 좋은 책

◆ BOOK적이는 여름휴가, 사랑과 삶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책 김효정 | 대중필자

시계의 알람을 잠시 꺼두어도 되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되며, 형식적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일회용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는, 3박 4일이든 길게는 일주일이든, 혹은 짧게는 2일의 여름휴가가 주어지는 나처럼 흔한 '직장인', 당신을 위해 나는 책 한 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교통체증과 인파가 물리는 휴가지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그저 생활 반경에서 여유로움을 '휴가'로 택한 당신에게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 한 권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다 어느 부분과 구절과 문장에서 배어나오는 맑고 향기로운 즙에 마음이 젖어들게 된 이 책은 2001년 8월부터 작년까지 장영희 선생이 <조선일보>의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그녀는



암 투병 중, 이렇게 말하였지요.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투쟁을,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나는 배우고 가르쳤다.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거다.”

이런 그녀가 문학의 힘을 알며, 문학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목이 주는 편견으로 문학? 하고 일순간 드는 거리감 때문에 이 책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문학에 대한 그러저러한 책이 아니라 장영희 교수, 자신의 삶과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학작품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써 놓은 책이거든요.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문체의 번들거림도 끈적임도 없이 담백하고 착한 어조로 담아내고,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문학의 주제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에 귀착된다”는 장영희 그녀의 말처럼, 올 여름 휴가 동안 문학에서 우리 자신의 사랑과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천**

◆ 삶의 그림자와 어울려 여름나기 유경 |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노년전문가

아이들 방학이 아니면 길 떠나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보니 내게는 '여름'과 '여행'이 어느 덧 묶여서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리 쉽지 않아 7, 8월 더운 여름에는 그저 '책의 바다에 풍덩!' 하는 것이 내 여름나기다. 실행하지 못하는 아쉬움 탓일까? 여름에 주로 집어드는 책은 어딘가로 떠나는 이야기다. 과거로의 여행이든, 마음 속으로의 여행이든, 뜨거운 사랑의 불속 탐험이든, 어쨌든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보는 것이다.

올해는 '영혼의 순례, 묘지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맹난자의 《인생은 아름다워》가 첫 책으로 뽑혔다. 머리말에서 불쑥 느껴진 서늘함이 나를 잡아끌었던 모양이다. 묘지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다는 작가는 그 시작을 중학생이던 남동생의 죽음과 택지개발로 공동묘지가 쓸려나가며 그 동생을 잃어버리고만 오래 전 경험이라고 적고 있다. 죽음에 관한 기록을 스캐랩한 지 20년, 여행을 가면 그 도시의 묘지부터 찾기 시작한 지 10년, 결국 작가들의

묘지기행을 한데 묶어 책으로 만들었다.

작가는 더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생각 말고 그 돈으로 여행을 하자며 남편의 정년퇴직 바로 다음 날 프랑스로 떠나 그 묘지만 찾아다녔다고 했던가. 책에는 보들레르, 아폴리네르, 이백, 도스토예프스키, 헤밍웨이 등 29명의 묘지와 묘비, 작품 속 죽음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죽음준비교육이

니, 자살예방전문가과정이니 하며 죽음에 매달려 있는 내게 이 책은 말한다. 죽음이란 삶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묘지기행을 떠나서면 그 어디쯤에서 그 그림자라도 한 번 만날 수 있으려나... 올 '여름나기'는 아무래도 죽음이 큰 강줄기를 이루려나 보다. **추천**



◆ 2005년 여름, 내가 챙겨둔 책들 이우일 | 만화가

겨울을 준비하는 재미들마냥 나는 뜨거운 여름을 위해 책을 재워놓고 있다. 이미 올 여름에 읽고 싶은 책이 서가에 한가득이다. 아내는 가지고 있는 책들도 다 못 읽었으면서 자꾸만 새 책을 들여놓는다고 성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읽고 싶은 신간이 나오는 속도를 읽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니 하는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새로 출간된 책시한 책들을 못 본 척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책에 관해 글을 청탁받게 되면 항상 이미 읽은 것에 관해 적었는데, 이번에는 사 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을 소개한다. 아직 읽지 않았지만 올 여름에 읽고 싶은 책들이다. 우선 소설부터 꼽아보자. 오르한 파묵의 《눈》, 《내 이름은 빨강》이 좋았으니 그 누구의 추천도 필요 없다.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유명세에 비해 읽는 것이 턱없이 늦긴 했지만 올 여름 대기 중이다. 박민규의 《카스테라》. 이미 실려 있는 대부분의 소설을 잡지 등을 통해 읽었지만 전부 다는 아니었다. 또한 모아서 다시 한꺼번에 음미하는 것도 큰 행복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무라카

미 하루키의 《어둠의 저편》, 《해변의 카프카》를 아직 읽지 않았다면 그것도 추천하고 싶다. 흠. 소설은 이 정도만 적고, 그 밖에도 이런 책들이 있다. 빅토리아 핀레이의 《컬러여행》, 이진섭의 《20세기 건축의 모험》, 움베르토 에코의 《칸트와 오리너구리》, 윌리엄 파운드스톤의 《패러독스의 세계》. 죽 늘어놓다 보니 분야에 상관없이 꽤 많기도 하다. 스스로 봐도 양서로만 잘도 고른 것 같아 만족이다. 하지만 과연 나는 올 여름 이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게다가 신간들이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한데, '적어도 이 책들은 다 읽겠다'고 다짐한 후,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부터 페이지를 넘겨보아겠다. **☞**



◆ 여름, 지나간 것들을 향해 한번쯤 뒤돌아볼 때 신현림 | 시인

어느 교수로부터 이런 얘길 들었다. “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독서’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감감이 되더군요.” 그의 말은 독서가 살아가는 이유인 내게 향수처럼 처음엔 독하게 천천히 계속 번져 왔다. 이 세상에 깜짝 놀랄 일, 경이로운 일은 책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한 전해린의 말을 언제나 나는 실감한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얼마나 지루한가. 성인이 된 이후 내 삶의 감각은 끈적끈적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는 ‘지루함’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 나는 늘 책을 보려 했다. 이제 책은 인생의 친구이자 어머니와도 같다. 특히 내 삶을 변화시켰고, 각성과 자극을 줬던 마르케스의 소설들을 잊을 수가 없다. 젊은 날 글쟁이로 꿈꾸게 했고 문학으로 인생의 경이로움에 몸을 떨게 했던 소설가 마르케

스, 그의 신작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이 소설은 내게 많은 생각을 일깨웠고 큰 감동을 주었다. 그 중 나이에 억압을 받으면서도 끝없이 나이로부터 훨훨 날아올라 자유로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한대목이 유난히 마음을 끌었다.

“나는 내 생애를 일 년이 아니라 십 년 단위로 재기 시작했다. 오십대의 삶이 결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육십대는 이제 더 이상 실수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장 열심히 산 시기였다. 칠십대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끔찍했다. 그러나 아흔 번째 생일에 ...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델가디나의 영혼이 내뿜는 향내가 풍겨왔다 ...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십장으로 백 살을 산 다음, 어느 날이건 행복한 고통 속에서 훌륭한 사람을 느끼면서 죽도록 선고받았던 것이다.” 87세의 노인이 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고 재미있고, 매력 있는 문체가 가슴을 흔들었다. 시간과 추억과 노스텔지어의 아늑한 무게 속에서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한 허망함과 그리움을 느끼는 자 누구나 이 책을 놓치지 말기를. **☞**

